

光日春秋

고원정



정치적인 오해가 없길 바라지만 나는 '복원'된 청계천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수도권 신도시에 살며 서울을 무시로 들락거리면서도 말이다.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접하게 되는 청계천의 새로운 풍경이 내게는 먼 이국처럼 낯설기만 하다.

정호철이요 일종의 테마파크일 뿐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요즘 '공사중'이다. 원래의 위치로 옮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차체에 현판도 바뀌어야 한다고는 란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버스로 그 앞을

않다.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자고 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가능한 일도 아니려니와 꼭 옳은 일도 아니다. 지난주에는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김에 호남지방의 유명한 한 사찰에 들러보았다. 매표소를 지나 10분 남짓 걸여가는 진입로 오른쪽을 펜스로 가려놓고 공사가 한창이었다. 자랑스럽게 써놓은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생태숲 조성공사'였다. '생태숲'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생태'

요즘 그 산을 둘러싸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 있다. 산책로의 출발점으로 삼던 야산자락이 뚝뚝 떨어져나가는 모양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애써 이해를 하려고 했다. 어쩌겠는가. 서민들이 들어가 살 썩 집을 많이 짓겠다는 데야... 그런데 야산을 깎아낸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지에 딸린 공원이었다. 잔디를 깔고 나무와 바위를 가져다놓고 정자를 올려서 어디서나 흔히 보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나는 알지 못한다. 자연 그대로인 야산보다 돈을 들인 인공녹지가 왜, 얼마나 좋은지. 세월이 흐른 뒤 또 누군가는 옛 야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나설 지도 모른다.

'지금 것'이 소중하다

지날 때마다 나는 또 혼자 고개를 가웃하곤 한다. 거창하게 제까지 울리면서 내세운 명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과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강행해야만 하는 일일까. 경복궁 창건 당시 문이 있던 자리에 표석이라도 하나 세워 후세인들이 바로 알도록 하면 되는 일이 아닐까.

란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며 '생태계'란 '생물과 그 생물을 둘러싼 환경'을 말한다. 우리는 그 '생태'와 '생태계'마저도 공사로 '조성'해버린다. 공사부지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는 조출한 파수원도 있고 실개천도 있어서 찾을 때마다 한강진 오솔길의 정취를 느끼곤 했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의 '생태계'다. 그 '생태계'를 잘 아물개고 새로운 '생태계'를 크고 모양 좋게, 심하게 말하자면 돈이 될 수 있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옛것'을 되찾아야 한다며 때려부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것'을 만들어야 한다며 뚱개버리고... 우리의 '지금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하게는 부당하기까지 하다는 말인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범국민적으로 또다른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 하나를 옮겨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도로의 흐름이 달라지고 주변의 도시계획도 바뀔 수밖에 없다.

돌아보면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사는 신도시에는 해발 200m쯤 되는 작은 산이 하나 있어서 가끔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

하지만 잊지 말라. '지금 것'들도 예전에는 '새것'이었으며 언젠가는 '옛것'이 된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지금 것'이 가장 소중하다. '지금'이 우리의 시대고 우리의 '생태계'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 보완 바람직하다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기능이 대폭 보완된다고 한다. 김병곤 문화관광부장과 박광태 광주시장, 지병문 의원, 송재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이 최근 회동을 갖고 기능 보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주식 등의 반발을 샀다.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은 지하 구조물로 설계돼 국제적 관광명소로서의 랜드마크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 시와 광주시의회 등이 그동안 끊임없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불만은 크다. 문화전당 기능에 산업화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약했다. 하지만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때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약했다. 하지만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때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약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불만은 크다. 문화전당 기능에 산업화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고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약했다. 하지만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을 때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미약했다.

문화부는 여론수렴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마찰과 잡음이 계속될 경우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부는 차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집행기능 부여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수출로 번 돈 해외여행으로 다 까먹는 나라

수출로 번 돈을 해외여행과 유학으로 까먹고 있다. 지난해 서비스 수지적자는 전년보다 51억 달러나 늘어난 187억 6천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60억9천달러에 머물러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조 원에 이르는 서비스 수지적자액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소비증가와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했을 것이다.

나가고, 외국인이 더 많이 입국하면 된다. 하지만, 국제화 시대에 해외여행을 통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해 여행수지 적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키운 주범은 일반여행 경비와 유학·연수비 등 여행수지였다.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2천만 달러로 서비스수지 전체 적자와 비슷한 수치다. 수출은 두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행수지 적자가 더 까먹은 셈이다.

문제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 18조 원에 이르는 서비스 수지적자액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소비증가와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했을 것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를 키운 주범은 일반여행 경비와 유학·연수비 등 여행수지였다.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2천만 달러로 서비스수지 전체 적자와 비슷한 수치다. 수출은 두자릿수의 견조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여행수지 적자가 더 까먹은 셈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규제와 사회적 위화감을 구실로 하향 평준화를 강요하는 서비스 산업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애국심 캠페인이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無等鼓

봄의 불청객 황사는 중국과 몽골 내륙지역에 걸쳐 있는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발생한다. 겨우내 얼어 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게 부서져 생성된 모래먼지가 지상 4~5km 상공까지 도달한 후 강한 고층 기류를 타고 미서부지역까지 날아간다.

에서 습기와 반응하면 강한 산화물이 돼 표면을 부식시키며 양력(물체를 끌어올리는 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47 점보 비행기의 경우 청소부 20명이 4시간 동안 매달려야 한다.

황사가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칼슘 성분은 산성 토양을 중화시킨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사가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황사에 포함되어 있는 탄산칼슘 성분은 산성 토양을 중화시킨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황사로 인한 피해는 태풍 등 자연재해와 맞먹는 수준이다. 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황사 기간 중 불량률이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황사가 극심했던 지난 2002년 17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역에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근 들어 기상청 예보가 자주 빗나가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폭설과 함께 강추위가 몰아 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정작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봄 황사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만큼은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황사는 항공회사에도 골치거리다. 황사가 심할 경우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비행기 세척도 자주 해야 한다. 비행기 통체에 묻은 황사가 지상

가심청은 올해 특히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9일 중국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황사 사태가 발생했다.

황사는 항공회사에도 골치거리다. 황사가 심할 경우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비행기 세척도 자주 해야 한다. 비행기 통체에 묻은 황사가 지상

가심청은 올해 특히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9일 중국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황사 사태가 발생했다.

'불청객' 황사



가심청은 올해 특히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9일 중국 서북지방에서 일어난 황사 사태가 발생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병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대학생이다.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단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최근 가장 많은 것이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전화다. 버스 노선 개편을 만족스러워하는 시민들, 또는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로 나뉜다. 만족스럽게 여기는 시민들은 급호·상무지구와 참단지 등 신도시에 거주하면서 장사를 하거나 출근하는 시민이다. 반면 금남로·충장로·양동시장 등 구도심에 거주하면서 장사, 출근하는 경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시민들이 많다.

순금을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0.01%를 위해서는 큰돈이 들므로 100%의 순금은 비효율적이다. 즉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다. 이처럼 100%를 만족하려면 비효율이 따른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도 마찬가지다. 100%의 승객이 만족하면 돈이 많이 든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준공영제이므로 시민의 세금이나 버스요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단지 소수의 시민을 위해 다수의 시민이 돈을 내야 한다면 이를 감당할 시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고 소수의 시민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비용을 바탕으로 불만족의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면 된다. 버스노

독자마당

재래시장 불황 타개 위해 상인들 서비스 개선부터 해야

얼마전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했다. 매스컴들을 통해 종종 재래시장 위축이라는 문구를 보곤 하는데 지역경제 이바지 차원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했다.

돈을 지불해야 했다. 신용카드를 쓴다고 물건값 흥정도 못하고 부르는대로 값을 지불했는데 그나마 물건에 대한 배달 비용까지 내게 된 것이다.

양동의 한 그릇 백화점에서 먼저 신용카드로 구입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구입할지냐고 되물더니 금액이 많으면 해 줄수 있다며 마치 신심소듯 말하는 것이다. 개인물건 구입이 아니라 사무실 물건 구입하는거라 신용카드 이용이 안되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해주겠다고 했다.

정찰제에 배달 잘되는 사무실 앞의 대형마트를 두고 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황당하고 화가 나서 삼점으로 전화해 따졌더니 사장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아주 형식적인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물건을 고르고 양이 많아서 배달을 부탁했다니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주소를 남기고 돌아 왔다. 그런데 몇일 후 사무실로 배달된 택배가기가 막하게 착불로 계산되어 있어 내 개인

▲이영민·광주시 북구 양산동

등기권리증은 법적 효력 없어 매매 계약서 불필요

조금 큰 집으로 옮겨야 하겠기에 몇일전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1주일만에 계약을 했다. 부동산에서 매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마침 매수자가 등기 권리증을 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는 7년전에 이사온 뒤 집 정리를 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하는게 아닌가.

이 등기권리증은 소위 말하는 '집문서'인데 지금은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행정관청에 법적 신고를 해서 대법원 등기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소유주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끝나

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자고 요구하는게 아닌가.

제약회사 드링크류 효능 표기 정확하게 하라

여행이나 외출시 가장 많이 찾는 것 중 하나가 드링크제 의약품이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만나도 드링크제를 나눠 마시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드링크제 약품의 효능 표기나 선전 문구가 과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다고 한다. 약효와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기된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마치 약병에 표기된 문구대로 효능이 있다면 다른 의약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선전 문구가 문제다.

특히 간장 보호제·간기능 개선제 등으로 표기돼 있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

다기 때문이다. 마치 약병에 표기된 문구대로 효능이 있다면 다른 의약품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선전 문구가 문제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최영지·광주시 동구 산수동

광주 시내버스 100% 만족? 글세요

이유가 뭘까.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는 “...공공부문이 시민수요에 맞게 노선과 운영방식을 공격적으로 관리·결정하고...”라는 글이 있다. 인구 대비로 노선을 결정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적은 구도심의 노선은 줄었고 인구가 많은 신도시의 노선은 늘었다.

선 재조정도 한 가지 방법이다. 광주시는 2월 8일에 재조정된 버스노선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한 달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재조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그 통계가 빈약하다. 방학 중인 탓에 학생 통제가 빠졌다. 구도심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급조된 듯한 인상이 들고 아마 그 효과도 미비할 것이다.

농촌지역 야산골터 버려진 차량 대책 세워야

농촌지역 방치된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 방치된 차량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회수되고 있으나 농촌의 후미진 주차장이나 인근 야산, 골터 등에는 버려진 차량이 흥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따르고 있다. 방치 차량을 신고해도 견인해 가는 경우도 드물고 현황 파악도 미흡한 실정이다. 서류절차가 복잡해 업무량은 많은데, 담당 직원은 적다고 한다. 따라서 방치된 차량이 조속히 회수되도록 서류절차를 개선하고, 시스템도 일원화했으면 한다.

▲최남아·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독신·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총 무 부 2200-511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 화 사업 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제 부 2200-616	여 령 매 배 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